구라보 주름제어 소재 "Eternalveil"

1. 개요

일본 구라보 섬유사업부는 면소재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착용시 또는 세탁 후의 주름방지 및 빈티지 주름가공 등 주름모양을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 있는 소재 "Eternalveil"을 개발하였다. "Eternalveil"은 구라보가 지금까지 쌓아온 방적, 제직 및 가공기술의 결합에서 태어난 주름형상 제어소재로, 비즈니스 캐주얼에서 빈티지까지 다양한 패션에 적용할 수 있는 소재이다(2011년 5월 19~20일에 개최된 "2012 구라보 섬유사업부 전시회"에 출품되었다).

면소재는 촉감, 흡습성 및 세탁 용이성 등이 우수해 수요가 높은 소재이다. 그러나 "구김"에 있어서는 불만족스러운 소재이다. 특히 비즈니스 의류의 캐주얼화에 따라 하루종일 착용후에도 좋은 외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름이 유지되면서도 구김이 생기지 않는 바지, 남방 등의 개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존의 형태안정가공 방법은 면 소재의 특성인 자연스러운 느낌과 쾌적성이 저하되고, 소재의 강력저하나 착용감이 나빠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기존 방법으로 면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착용후 생기는 구김"을 막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라보는 지금까지 쌓아 온 방적, 제직 및 가공의 노하우를 살려 소재의 감촉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형태안정성을 고차원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을 확립하였고, 이 기술로 태어난 것이 주름형상 제어소재 "Eternalveil"이다.

2. 소재특징

주름형상 제어소재 "Eternalveil"은 구라보의 면방적 및 제직기술과 일본 염색가공 거점인 도쿠시마 공장의 섬유개질 기술을 결합해 만든 것으로, 소재의 감촉이 손상되지 않으며, 형태안정성이 우수한 소재이다. 이 소재는 기존의 형태안정가공 직물처럼 수지가공으로 인해 착용감이 나빠지는 경향이 없으며, 면섬유의 부드러운 감촉을 유지하면서도 마모 및 인열강도 등의 저하가 적은 쾌적한 의류

용 소재이다.

(1) 착용시 주름방지 효과

비즈니스 캐주얼 용도로 착용 기회가 많은 재킷이나 바지 등에 적용하면, 팔꿈치의 주름이나 어깨에 걸친 가방 등에 의한 주름 및 무릎 뒤의 주름 등을 방지하여 하루종일 “새것 느낌” 을 유지할 수 있다.

(2) 세탁후 주름방지 효과

세탁건조 후에도 직물표면의 구김이 생기기 어려워 세탁 후 다림질이 거의 필요 없다.

* 워시 앤 웨어성(W & W 등급) 4.0 급 정도 유지

(3) 주름유지 효과

비즈니스 캐주얼에 필요한 바지 중심선 주름의 유지성이 높아 하루종일 착용 후에도 주름이 영성해짐 없이 유지되어 “새것 느낌” 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다림질을 하지 않고도, 지속적으로 착용이 가능하다.

(4) 주름형태 컨트롤효과

주름의 모양을 제어할 수 있어, 빈티지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세탁 후 주름의 형태가 남아있는 주름가공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빈티지풍의 제품에 요구되는 “늙은 느낌” 도 표현할 수 있어, “새것 느낌” 에서 빈티지를 표현한 “늙은 느낌” 까지 폭넓은 전개가 가능하다.

(5) 전력사용 감소효과

간단하게 “새것 느낌” 이 있는 스타일을 장시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다림질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림질 시간을 단축해 사용전력을 줄일 수 있다.